

# 엔저가 일본의 對한 투자에 미치는 영향

2013 . 05

# 차 례 >>

## 1. 서론 1 >>

## 2. 일본의 엔저 정책 2 >>

- 엔화 환율 동향 ..... 2
- 일본 정부의 환율 정책 ..... 3
- 일본의 환율 정책에 대한 주요국 반응 ..... 4
- 엔저에 대한 전문가 전망 ..... 5
- 환율 변동과 FDI 관계에 대한 학계 이론 ..... 6

## 3. 일본의 對한 투자 동향 7 >>

## 4. 엔저가 투자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9 >>

- 해외 투자 여부에 미치는 영향: 자국 내 투자↑ VS 해외 투자↓ ..... 9
- 투자시점 결정에 미치는 영향 ..... 11
- 사업모델에 따른 엔저 영향 ..... 12

## 5. 결론 14 >>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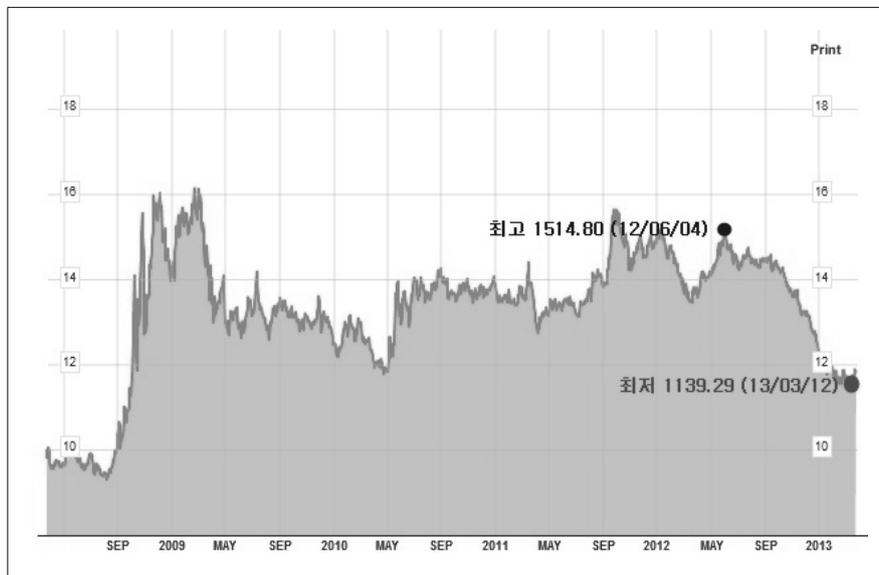
- 지난 20년간의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sup>1)</sup>’라는 새로운 경제 정책 추진
  - 1991년 자산버블 붕괴 이후 2012년까지 일본의 평균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함
  - 강력한 양적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통해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 경기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고자 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세를 보이던 엔화는 아베노믹스(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로 약세로 반전되기 시작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장기간의 일본 물가 하락을 배경으로 엔화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왔음
  - 그러나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2% 물가상승을 실현하겠다는 아베노믹스 정책 추진으로 인해 엔화가 급락하고 닛케이주가지수가 급등하기 시작
- 이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엔저 현상이 일본의 對한 투자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조사에 착수

1) 아베노믹스: 일본 아베 총리의 이름인 ‘Abe’와 경제를 의미하는 ‘economics’의 합성어로서 엔화를 무제한으로 공급하여 일본 경기를 부양하려는 아베 정부의 새로운 경제 정책.

## 2. 일본의 엔저 정책

### □ 엔화 환율 동향

○ 최근 5년간 원/100엔 환율<sup>2)</sup>



[최근 5년간 원/100엔 환율 (자료원:Bloomberg)]

- 최근 엔저 추세가 시작된 이래 100엔 대비 원 환율의 최고점과 최저점은 약 33% 차이 남

\* 최고 100엔=1514.80원(2012.06.04), 최저 100엔=1139.29원(2013.0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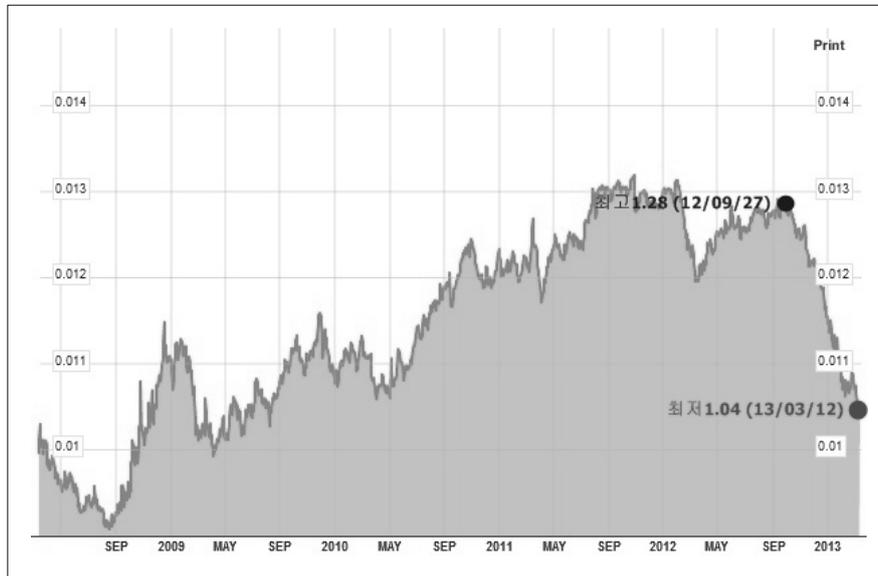
2) 1990년 이후 100엔 대비 원 환율이 10% 이상 하락한 시기는 세 차례.

1차(1995-1996) 824원 → 740원 (10.3% 하락) - 1995년 4월 역플라자 합의

2차(2004-2007) 1059원 → 790원 (25.4% 하락) - 일본의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

3차(2012-2013.3월) 1514원 → 1139원 (33% 하락) - 일본의 대규모 양적완화

## ○ 최근 5년간 달러/100엔 환율



[최근 5년간 달러/100엔 환율 (자료원: Bloomberg)]

- 최근 엔저 추세가 시작된 이래 100엔 대비 달러 환율의 최고점과 최저점은 약 23% 차이 남

\* 최고 100엔=1.28달러(2012.09.27), 최저 100엔=1.04달러(2013.03.12)

- 엔저로 인해 엔화 대비 원화, 달러화 모두 가치가 상승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달러화 대비 원화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남

## □ 일본 정부의 환율 정책

- 일본 정부는 대담한 재정투입과 양적완화를 통해 엔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국 수출 활성화와 디플레이션 탈출을 꾀하고 있음
  -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은 엔화약세를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환율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일본정부는 환율조작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지만 엔화의 지나친 강세를 정정할 권리는 보유하고 있다” (’13.02.18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일본은행(BOJ) 통화정책은 통화절하를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 “대담한 통화완화 정책을 취해 디플레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일본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세계 다른 국가들에게도 어느 정도 좋다.” (‘13.03.04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시장에 공급하는 돈의 총액을 2012년 말 138조 엔에서 내년 말까지 갑절인 270조 엔으로 늘리기로 결정”, “국채 매입액이 지폐 발행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일본은행 규정’ 적용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해, 국채 매입에 제한을 없앴” (‘13.04.04 금융정책결정회의,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

## □ 일본의 환율 정책에 대한 주요국 반응

-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이 일본의 환율 정책에 대한 직·간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높임. 하지만 G20 등 국제회의에서 비판의 수위를 조절, 일본의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용인하는 분위기가 조성
  - (중국) “이웃국가를 쓰레기장쯤으로 취급하고 환율 전쟁을 촉발하는 일은 다른 국가들에게 위험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국에 해로워질 것”, “책임감 있는 정부로서 (통화절하를) 하지 않기 바란다.” (‘13.03.06 가오시칭, 중국 국부펀드 중국투자공사(CIC) 사장)
  - (IMF) “선진국의 양적완화는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13.04.07 보아오 포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
  - (호주) “선진국의 양적 완화 때문에 아시아가 특히 피해를 보고 있다.”, “계속 참고 있지는 않을 것” (‘13.04 웨인 스완, 호주 재무장관)
  - (EU) “일본의 장기 불황을 감안할 때 공격적인 엔화 약세 정책을 용인할 수 있다” (‘13.04 올리 렌, 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
  - (G20) “일본의 최근 정책은 디플레이션을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국내 수요를 부양하기 위한 것” (‘13.04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성명 中)

## □ 엔저에 대한 전문가 전망

- 전문가들은 당분간 엔화 약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글로벌 IB 1년 후 엔화값 전망
  - (골드만삭스) 12개월 뒤 전망치를 달러당 95엔에서 106엔으로 조정
  - (크레디트스위스) 3개월 뒤 전망치를 달러당 105엔, 12개월 뒤에는 달러당 120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씨티그룹) 3개월 전망치를 달러당 99엔에서 107엔으로 변경
  - (스탠다드차타드) 12개월 뒤 전망치를 달러당 93엔에서 100엔으로 변경
- 한국 전문가 전망
  - “엔화 약세는 장기적인 추세다.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봐야 한다.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로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아베 정부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려면 2~3년 내로 환율이 120엔대로 올라가야 한다. 일본 정부는 목표치 달성을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달러 환율은 올해 100~105엔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13.04.23 이상재, 현대증권 글로벌경제팀 부장)
  - “오는 7월 29일 일본 참의원 선거 전까지 현재와 같은 양적완화 기조가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될 경우 엔저가 더 지속할 수 있다.” (’13.04.23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 “일본 정부가 2015년 3월까지 인플레이션 1.5%로 수정 발표했다”, “이때까지는 엔화 약세를 지속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이 계속될 것” (’13.04.23 이지형, 우리투자증권 연구원)

## □ 환율 변동과 FDI 관계에 대한 학계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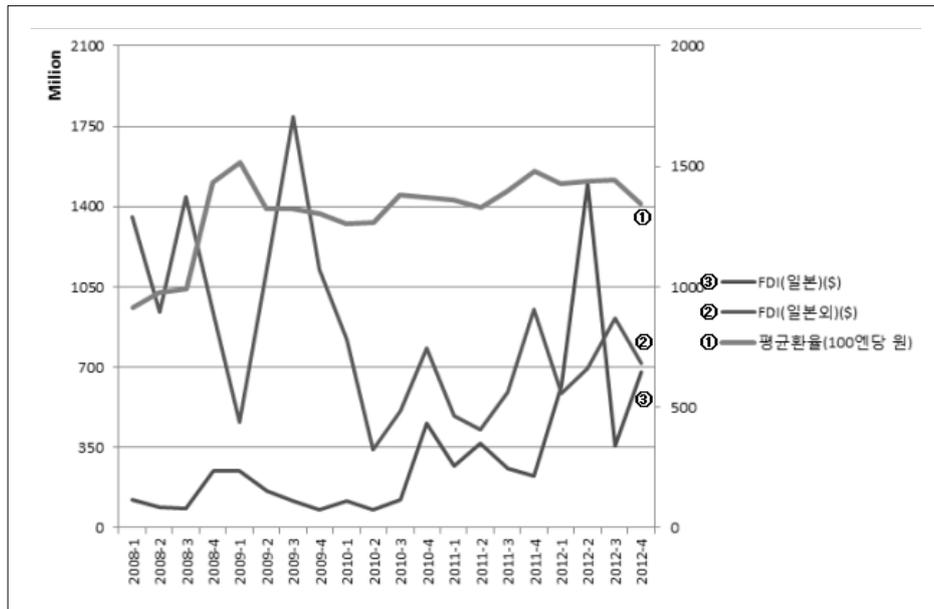
- The Princeton Encyclopedia of the World Economy (2009년 발간)에 실린 〈Exchange Rat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에서 환율 변동이 다음과 같은 부문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 바 있음

### 〈Home Country와 Host Country 간 환율 변동과 FDI의 관계〉

- 수준 (LEVEL)
  - 상대임금 & 생산 비용 (relative wage & production costs) :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임금 및 생산 비용이 하락
  - 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용 (costs of financing the investment project) :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용 증가
  - M&A (Mergers & Acquisitions) :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국내 인수 증가
- 변동성 (Volatility)
  - 생산 유동성 (production flexibility) : 환율의 변동 살핀 후 과잉 생산능력과 생산지 이동 결정 가능성 높음
  - 위험회피 (risk aversion) : 환율변동은 투자수익에 추가적인 위험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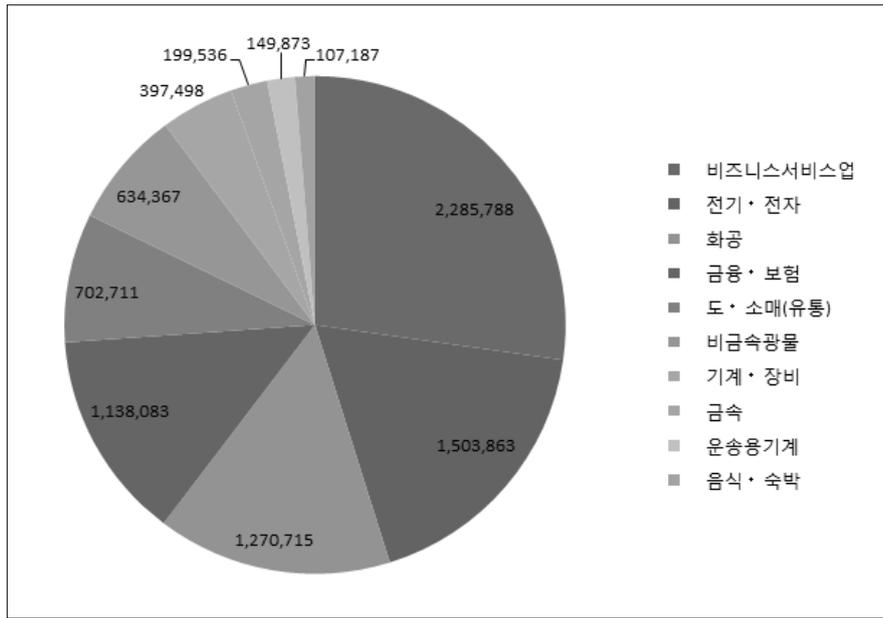
### 3. 일본의 對한 투자 동향

- (신고기준) 2012년 일본의 對한 FDI는 전체 FDI 중 27.9%에 해당하는 45억 4천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 대비 98.4% 급증한 규모로 미국과 EU를 제치고 최대 투자국이 됨
- (도착기준) 2012년 일본의 對한 FDI는 전체 FDI 중 36.1%에 해당하는 38억 4천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 대비 169% 급증한 규모
- 최근 5년간 對한 투자 동향



[’08~’12 분기별 평균 환율과 일본 및 일본 외 국가 FDI (자료원,INSC)]

- 〈’08~’12 분기별 평균 환율과 일본 및 일본 외 국가 FDI〉 추이를 보았을 때 최근 5년간 분기별 평균 환율과 일본의 FDI(도착 기준), 일본 외 국가의 FDI(도착 기준) 간 서로 연관성이 높지 않음



[최근 5년간 일본의 對한 업종별 투자실적 (단위:천달러) (자료원:INSC)]

- 최근 5년간 일본의 對한 업종별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비즈니스서비스업, 전기·전자, 화학, 금융·보험, 도·소매(유통) 등 순으로 투자액 차지
- 일본은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의 부품을 생산하여 한국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마트 등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 금융·M&A·보험 등을 취급하는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함
- 이는 특정 시장과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의 의미. 다시 말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는 한계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로서 실제 엔저로 인한 환율의 영향 받을 가능성은 낮음

## 4. 엔저가 투자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 □ 해외 투자 여부에 미치는 영향: 자국 내 투자↑ VS 해외 투자↓

- 엔화 가치의 하락은 일본 기업의 해외 투자 시 투자비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자국 생산 후 해외 수출 시 가격경쟁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음. 따라서 엔저는 투자비용과 수출가격 양 측면에서 모두 일본기업의 해외 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 한국 내 기업고객과의 전략적 관계를 목적으로 한 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對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을 전망이나, 한국 시장의 비중이 낮거나 자국 시장 비중이 높은 기업의 對한 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엔저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한국 경기 부진 우려와 일본 경기 회복 기대감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가중되면서 일본 기업의 자국 투자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참고] 과거 엔화 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

\* 자료원:

- 기재부 보도자료 “최근 엔화 약세의 영향 및 대응방안” (’13.04.01)
- 일본의 對한 투자: INSC 국가별 실적

□ (동향) ‘80년대 이후 최근과 같이 엔화 약세와 원화 강세가 함께 진행된 시기는 ‘88~’90년, ‘04~’07년 두 차례

① (’88.6~’90.5) 엔화는 버블붕괴, 경상수지 흑자축소 등으로 약세로 전환되고 원화는 3低 호황(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등으로 강세로 전환

- 환율이 수출에 부정적인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 (’88년 4.5% → ’90년 3.2%)되면서 우리 성장과 수출, 경상수지가 악화

	’88	’89	’90
성장률(%)	11.7	6.8	9.3
수출증가율(%)	28.4	2.8	4.2
경상수지(억불)	148	53	△14
일본의 對한투자 (억불(증가율))	4.4(16.7%)	4.0(△7.9%)	3.7(△8.9%)

② (’04.11~’07.6) 엔화는 내외 금리 차 확대\* 등으로 해외투자가 확대되면서 장기간 약세를 보였고, 원화는 외환위기 극복이후 양호한 경제 여건을 바탕으로 강세기조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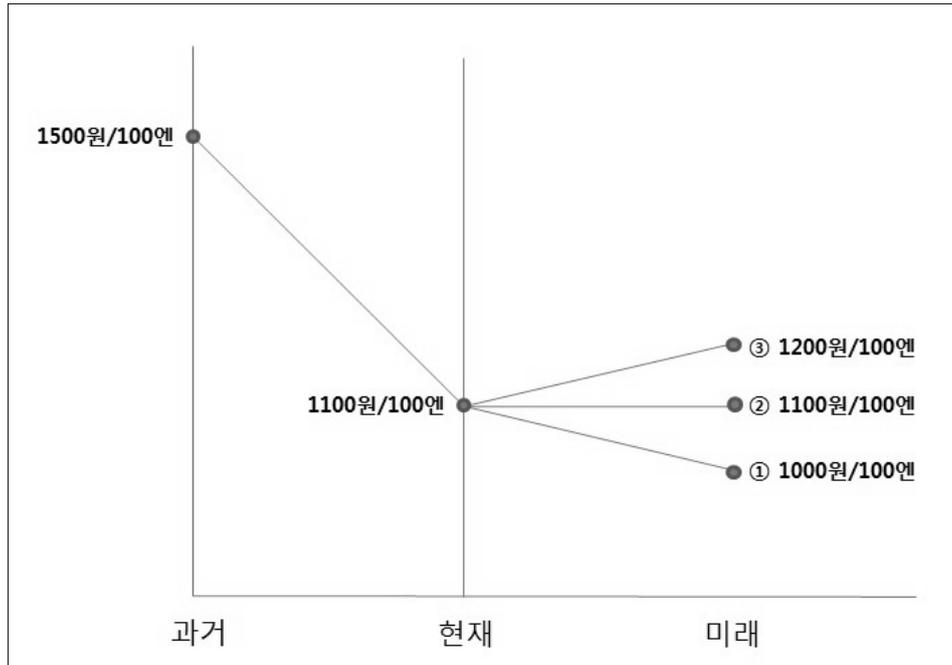
\* 일본은 제로금리를 ’00년대 지속하였으나 미국은 ’03 ~ ’06년 중 정책금리를 인상 (1→ 5%)

- 환율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호조를 지속하면서 우리 성장과 수출, 경상수지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양호\*한 모습 시현

	’04	’05	’06	’07
성장률(%)	4.6	4.0	5.2	5.1
수출증가율(%)	31.0	12.0	14.4	14.1
경상수지(억불)	323	186	141	218
일본의 對한투자 (억불(증가율))	18.0(287.3%)	16.5(△8.3%)	16.1(△2.1%)	8.2(△49.3%)

## □ 투자시점 결정에 미치는 영향

- (투자시점) 환율이 현재의 100엔당 1,1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진다는 시나리오 ①, 1,100원으로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시나리오②, 1,200원으로 올라간다는 시나리오③으로 나누어 그린필드 투자와 M&A 투자별로 살펴보았음



[100엔 대비 원 환율 가상 시나리오]

### 〈엔화 변동 시나리오별 투자 시점 전망〉

시나리오	전망
① 1000원/100엔	투자 시점 앞당김
② 1100원/100엔	투자 시점 영향 없음
③ 1200원/100엔	투자 시점 늦춤

- (시나리오①) (그린필드 투자) 한국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일본 기업과 같이 반드시 한국에 투자를 해야할 때,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엔저가 더 심화되어 투자 비용이 상승하기 전에 투자 시점을 앞당기게 됨. (M&A 투자) 회수 시점에 원화를 매각하여 엔저가 되면 수익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투자 시점을 앞당기게 됨

- (시나리오②) 현 상태와 똑같이 1100원을 유지하는 경우는 그린필드 투자나 M&A 투자 모두 투자시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시나리오③) (그린필드 투자) 투자비용이 상승하지 않는 엔고 상태에 투자를 하기 위해 투자 시점을 늦추어 엔화가 더 오르기를 기다릴 것임. (M&A 투자) 회수 시점에 엔고가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 시점을 늦추거나 투자를 망설이게 될 것임
- 시나리오별 투자시점 선택에 있어 그린필드 투자와 M&A 투자는 결과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장기 투자를 속성으로 하는 그린필드 투자는 환율의 변화에 덜 민감한 반면, 통상 5년 전후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M&A 투자는 환율의 변동성과 회수 시점의 환율 전망에 민감하기 때문에 M&A 투자가 그린필드 투자보다 투자 시점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음

□ 사업모델에 따른 엔저 영향

- 일본 기업을 원재료 및 부품의 조달, 물품의 생산, 판매에 따라 4개로 그룹화 하여 엔저의 영향을 분석 (투자유치 측면에서의 구분이므로 생산은 자국에서 하는 기업만 대상으로 함)

〈사업모델에 따른 엔저 영향: ○ 유리, △ 무관, × 불리〉

그룹	조달		생산	판매	
	조달처	영향		판매처	영향
1	자국	△	자국	자국	△
2	자국	△	자국	해외	○
3	해외	×	자국	자국	△
4	해외	×	자국	해외	○

- (그룹1) 자국에서 원재료 및 부품을 조달하여, 자국에서 상품 생산 및 판매하므로 환율의 영향과는 무관

- (그룹2) 자국에서 원재료 및 부품을 조달, 상품을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하므로 수출 시 가격경쟁력 혜택 상승
- (그룹3) 해외에서 원재료 및 부품 조달 시 비용 증가로 인한 손실 증가
- (그룹4) 해외에서 원재료 및 부품 조달하여, 자국에서 상품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하므로 수출 시 수출단가 인하로 인한 혜택이 증가하나 원·부자재의 해외조달 비용 증가로 인해 혜택이 일정부분 상쇄

## 5. 결론

- 일본의 對한 투자는 국내 대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부품 소재 투자나 국내 업체와의 합작투자 등 전략적 필요성이 큰 투자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서 환율 변동에 의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임

〈2012년도 일본의 주요 對한 투자 (자료원,INSC)〉

업체명	투자분야	금액(달러)
A사	전기전자	4천 9백만
T사	화공	5천 4백만
A사	전기전자	4천 5백만
J사	화공, 도소매, 전기전자	1억 1천만
N사	비금속광물	4천 8백만
S사	전자전자, 화공	7천 5백만
C사	화공	9천 8백만

- 그러나 엔저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본 경기 대비 국내 경기의 부진 전망이 심화되면 일본의 對한 투자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 (국내기업 실적 - 일본 부품소재 투자 관계) 국내기업의 실적 악화 → 국내기업 설비투자 부진 → 일본기업(부품소재)의 투자 감소
  - \* 원/100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 모두 1,000원으로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8%p 하락하고,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의 수출 증가율은 각각 7.5%p, 6.4%p, 3.8%p 하락할 것으로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원高·엔低의 파장과 대책〉 중에서)
- 생산원가 상승효과로 수출단가 하락효과가 일정부분 상쇄되는 원·부자재 해외조달 비중이 높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확대하고, 첨단 부품소재 분야에 대해서는 입지 제공·조세 감면·현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일본기업 대비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우위를 토대로 엔저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선전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통신기기 관련 분야의 일본 부품소재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주요 전자업체 2013년 1분기 실적 (자료원.KISLINE)〉

구분	매출(원)	전년비증감률	영업이익(원)	전년비증감률
삼성전자	52.8조억	16.78% ↑	8.7조억	52.9% ↑
LG전자	14.1조억	6.8% ↑	3천억	13% ↓
LG디스플레이	6.9조억	10% ↑	1.5천억	흑자전환
LG이노텍	1.6조억	25.70% ↑	1.5백억	42.60% ↓
SK하이닉스	2.8조억	16.40% ↑	3천억	흑자전환

- 엔저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FTA 허브 효과를 활용하여 수출거점형 투자 유치 확대

## 2013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3-001	오바마 재선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2013.1
13-002	2013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1
13-00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공작기계 (머시닝센터) -	2013.1
13-004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골프용품 -	2013.1
13-005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안경테 -	2013.1
13-006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에스터 단섬유 -	2013.1
13-007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프로필렌 테이프 -	2013.1
13-008	선진국의 미래산업 육성정책	2013.2
13-009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광케이블 -	2013.2
13-01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전동공구 -	2013.2
13-01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컴퓨터주변기기 -	2013.2
13-01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펌프 -	2013.2
13-013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및 시사점	2013.2
13-014	한-콜롬비아 FTA 효과 및 활용방안	2013.2
13-015	떠오르는 이라크 재건시장을 선점하라	2013.2
13-016	주요국 환율변동에 따른 해외시장 동향과 진출여건	2013.2
13-017	엔저하의 수출 경쟁력 현황 및 전망	2013.2
13-018	한미 FTA 발효 1주년, 대미 수출 성과 분석	2013.3
13-019	일본의 대인도 진출전략 및 대응방안	2013.3
13-020	독일 직업교육 훈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	2013.3
13-02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주요 시장 동향 <기타 무선통신기기>	2013.3
13-02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플라스틱 가공제품 -	2013.3
13-02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편직물 (인조섬유제) -	2013.3
13-024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하는 멕시코	2013.3
13-025	인도의 CSR 정책과 시사점	2013.3
13-026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유리 저장 용기 -	2013.3
13-027	미국-EU FTA 추진현황과 향후 시사점	2013.3
13-028	日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현황 및 시사점	2013.3
13-029	2013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4
13-03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X선 및 방사선기기부품 >	2013.4
13-03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초화장품 -	2013.4
13-03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합성수자합성고무 -	2013.4
13-03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밸브·기타기계류 -	2013.4
13-034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스키 헬멧>	2013.4
13-035	Post Chavez, 변화와 전망	2013.4
13-036	2013년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평가 및 시사점	2013.4
13-037	한·터키 FTA 10대 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3.4
13-038	최근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2013년 전망	2013.4

## □ KOCHI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3-001	대만시장에서 한류 활용하기	2013.1
13-002	[중국 석학에게 듣는다] 2013 중국 경제 전망	2013.2
13-003	한중 FTA 전문가 간담회 회의록	2013.5

## □ KOTRA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3-001	해외 주요국 투자인센티브 현황 및 사례조사	2013.1
13-002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2013.1
13-003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13.1
13-004	2012년도 북한의 대외교류동향	2013.2
13-005	GCF시대에 대비한 세계그린프로젝트 수주방안	2013.3
13-006	국가R 개선 방안 연구	2013.3
13-007	2009~2012 KOTRA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성공사례집	2013.3
13-008	2013 외국인투자 가이드	2013.4
13-009	2013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업체 디렉토리	2013.5
13-010	각국별 해외전시회 참가 가이드	2013.5
13-011	2013 이라크-요르단 시장조사단 종합 결과 보고서	2013.5
13-012	2012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3.5
13-013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2012	2013.5

##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3-001	2013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3.1
13-002	2013 중국3대 유망시장 설명회	2013.1
13-003	2013년 전략시장 협력 파트너쉽 포럼	2013.1
13-004	Iraq-Korea Business Forum	2013.3
13-005	Reshoring to KOREA - 국내 U턴기업 지원제도 및 투자환경 설명회 -	2013.4
13-006	2013년 제1회 차이나 커뮤니티 세미나	2013.3